



5면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개최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음 9월 16일) 제337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지난 27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전국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자도 권한 이양 지방소멸 극복”

김관영 전북도지사,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인구유출 원인은 일자리, 그 다음은 교육
일자리 문제 해결 위해 기업유치가 최우선”

도내 여론 전하며 ‘새만금 예산 복원’ 적극 건의
지역 특성맞춘 산업생태계 조성·발전에 공감대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본격적인 지방자치 강화를 논의했다.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및 행안부·산업부 등 지방 관련 11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이어 시도별 지방시대위원회도 속속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 행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 강화 안전을 중심으로 개최됐다

이날 김 지사는 지방소멸과 관련해 “인구유출의 원인은 첫 번째가 일자리 문제, 그 다음이 교육”이라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우리 전북도 아차전지 등 사상 최대 투자 유치 덕분에 60여년간 지속돼 온 인구감소를 이제는 멈출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사발에 이은 릴레이 단식까지 도내 여론과 민심을 전하면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기화발전특구 추진방안, △자

치법정 강화 방안 등 의결 안전과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등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발전해 나가는데 확실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첨단정책의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해내니 각 부처 장관들께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열려 시도지사협의회 17대 회장 선출 및 자치조직권 확대 기화발전특구 추진계획, 교육발전특구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새 집행부 출범 예정에 따라 김 지사는 12월 말까지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의 임기를 수행한다. /김재훈 기자

전북 상용차 산업 위기 극복 목표... 현대차 ‘트럭·버스 페스타’ 전주공장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고속버스 유니버스 등 선보여

현대자동차는 지난 28~29일, 전주공장에서 2023 현대 트럭·버스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타는 수소 상용차 부문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는 현대 상용 부문의 역량과 위상을 대내외에 보여주

고 위기에 처한 전북 상용차 산업을 민·관·정 등 관련 전 부문이 뜻과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그동안 수도권에서 개최돼 오던

행사를 사상 처음으로 생산공장이 있는 전북에서 열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7일 열린 개막식 겸 프레스데이 행사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 도내 기관장들과 경제 단체 관계자, 자동차 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

며, 김관영 도지사가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와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현대차는 수소 비전과 전주공장의 밝은 미래를 보여줄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과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등 수소차를 비롯해 중형버스 카운터와 고속버스 유니버스 중형트럭 마티와 파비스 등 30여종의 차량을 선보였다.

또한 행사를 찾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페어 등도 운영했다. /원주=염재복 기자

문화도시 지정 ‘도전장’

우수한 문화 역량 토대 경제·산업 육성 위해
전주시, 민관거버넌스 구축·의견 수렴 추진

전주시가 우수한 문화 역량을 토대로 경제와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한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사업을 신청하고 공모 선정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현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공모사업으로, 문화로 지역발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문화매력국가를 선도·의 비전 아래 선정시 3년간 국비 최대 1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광역단위로 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곳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전라권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민선8기 시정 비전인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를 목표로 공모사업에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문체부의 공모사업이 발표된 지난 6월 이후 문화·산

업·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지속적인 회의와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시는 지난 28일 팔복예술공장에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문화기획, 생활문화, 산업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민·관이 참여하는 포럼을 열고, 문화와 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지역 중심의 문화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나아가 관광 활성화를 이뤄내 전주시민과 예술인, 기업 등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문화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문화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전통문화도시라는 자부심과 관광거점도시,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전주가 문화산업 분야의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충남, SNS ‘가을 매력 대결’

양 지자체 간 상생 발전 협업 이벤트 추진

내달 15일까지 인스타그램서 공동 홍보

전북도가 충남도와 함께 양 지자체 상생발전 및 가을 여행 명소 홍보를 위해 SNS 협업 이벤트를 추진한다.

“새로운 전북 X 힐센충남, 가을을 잡다”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이벤트는 지난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북도와 충남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동시 진행된다.

두 지역 도민(팬)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북도·충남도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이번 가을에 전북도와 충남도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와 각 지자체 가을 매력 등을 댓글로 남겨보면 된다.

도민(팬)들이 직접 거주하는 지

자체의 매력을 홍보하는 대결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벤트 참여자 중 총 100명(각 50명씩)에게 전북도와 충남도에서 생산한 지자체 농특산품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김희경 전북도 소통기획과장은 “한집한 두 지자체가 상호 협력한다면 홍보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며, “전북도와 충남도의 상생발전을 위해 온라인 소통부터 교류의 물꼬를 터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충남도는 지난 16일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갖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

[全心全意 :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는 모습]

축! 전주매일 창간

전북은행의 마음이 전북도민의 힘으로

전心 전力

전북은행의 마음을 다하여, 전북도민의 힘이 되는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